

# 고흥교육청, 2024학년도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 출발!

## 2024. 고흥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 참여교사 연찬회 개최 공동교육과정 운영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주고 받아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희)은 2월 27일 ~ 28일까지 교육청 대회의실 및 다목적강당 등에서 2024. 고흥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사 초·중 22명, 중·고 38명을 대상으로 학교급별 「2024. 고흥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 참여교사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2024. 고흥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더불어 교육지원청의 지원 방향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참여 교사들 간에 교과별(중등), 학년별(초등)로 모여 2024학년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학교 간 행사일정을 조율하는 등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에 대한 진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고흥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23학년도에 이어 고흥 작은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과정과 수업의 질을 높여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고자 2024학년도 고흥교육지원청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전년도에는 초등에서는 10개 학급 12명, 중등에서는 4개 교과 23명의 교사가 참여하였는데, 2024학년도에는

초등 24학급 22명, 중등 8개 교과 37명의 교사가 참여하면서 2배 이상의 교사와 교과, 학급이 공동교육과정을 함께하게 되었다.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이 '공동교육과정'이라는 새로운 교육적 과제를 추진하면서 어려움 없이 수업과 교육과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영역의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고흥교육지원청은 2023학년도부터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작은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작은학교 교육력을 높이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펼쳤다. 지난 1월 17~19일에는 2박 3일간 초·중등교사 70여명을 대상으로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토대가 되는 학교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교사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024학년도에도 공



공동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교원 컨설팅 지원 등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고흥=기동취재본부

## 광양교육청, 마을학교 보조금 집행 관련 촘촘한 연수

### 2024. 광양마을학교 대표들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응원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계준)은 2월 28일 사라실예술촌에서 12개 마을학교 대표들이 글

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성공 기원 다짐식과 보조금 집행 연수를 실시하였다.

새롭게 바뀌는 마을학교 보조금 집행에 대한 연수를 통해 평소 어려웠던 지출과 품의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지침과 절차에 맞게 운영하여 투명한 마을학교 운영으로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참석한 광양마을학교 대표들은 그동안 지역 중심의 미래교육을 누구보다 현장에서 고민해 왔으며 전남에서 열리는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지역교육생태계가 미래교육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길 기원하며 응원과 지지를 다짐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 전남교육청, '전남형 늘봄학교' 안정 운영 총력

### 프로그램 내실화 · 무상지원 확대 · 학교업무 경감 등 주력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3월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하는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교육부의 2024년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초등학교 1학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학기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교(425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타 지역보다 발 빠르게 '전남형 늘봄학교'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 왔다.

특히, 전남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내실화와 학교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늘봄학교는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기존 체계를 바탕으로, 초등 1학년은 매일 2시간의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초등 2

학년~초등 6학년은 학생 성장·발달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늘봄(돌봄) 교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속 지원한다.

농어촌지역 1학년 학생에게 무상으로 지원됐던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가비를 도시권까지 확대해 무상 운영할 예정이어서, 학부모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학교의 업무 부담 최소화를 위한 노력으로, 학교에 기간제교사 및 단기행정인력을 지원했으며, 2학기부터는 늘봄실무직원을 전 학교에 배치해 늘봄학교 업무가 교원과 분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22개 교육지원청)에서 프로그램 감사·채용·지원을 맡는 등 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감사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도서 지역 7개 군은 교육지원청에서 위탁기관을 선정해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및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 인력도 보강했다.

전남교육청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직원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는 등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돌봄부터 진학·취업까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첫발이라는 생각으로, 전남 늘봄학교를 준비해 왔다."며 "학생의 성장·발달 단계와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해 저출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찾아와 머물고 싶은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강진교육청,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공감 이야기

### 늘봄학교 및 중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외부강사 연수 실시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삼)은 2월 28일 관내 초·중학교에 출강하는 늘봄학교·중등방과후학교 외부강사 3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에서는 3월부터 시작되는 프로그램에 대비하여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년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업에 출강하고 있는 강사를 모셔 실제 발생한 현장 사례에서 느낀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2024. 1월부터 강사들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과 더불어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수혜 사항을 안내하여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알려주는 시간도 갖었다.

연수에 참석한 강사들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부터 사례를 통한 정보를 얻고, 같은 강사의 입장에서 공감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병삼 교육장은 "늘봄학교가 도입되면서 강사님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인식하



고 학생들에게 지식 전달과 동시에 올바른 윤리적 가치와 원칙이 함께 교육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